‘수사기밀 누설’ 경찰 비위 파장 일파만파

광주경찰청 경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구속

전남경찰 알선수재 등으로 재판…사무장도 연루

광주·전남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수사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알선수재 또는 뇌물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구속돼 파장이 일고 있다.

2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구속된 A 경위를 직위해제 조치하고 감찰에 착수하는 등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A 경위는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은 A 경위의 상세한 혐의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찰 측에 보낸 기관통보 혐의에는 사전구속영장 청구 혐의 2개 외에 ‘뇌물수수’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까지 A 경위는 수사상황을 동료 경찰관에게 유출하고, 범죄 혐의점을 알고도 제대로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된 내용은 없다.

다만, 전남경찰청 소속 B 경위가 이번 사건과 별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함께 기소된 고교 동문인 C씨가 A 경위 사건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A 경위 관련 사건으로 광주 지역 모 변호사 사무장 D씨에 대해 검찰이 전날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 비위 파장이 광주지역 법조계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광주경찰청은 A 경위가 구속됨에 따라 감찰 등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올해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직무 관련 경찰 비위를 별도로 감찰하는 기능을 신설함에 따라, 감찰은 기존 감찰부서가 아닌 광주경찰청 수사심의계 소속 수사감찰관이 맡는다.

광주청 수사감찰관은 A 경위에 대한 징계 건의를 위한 사전 작업 성격으로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A 경위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실제 징계는 형이 확정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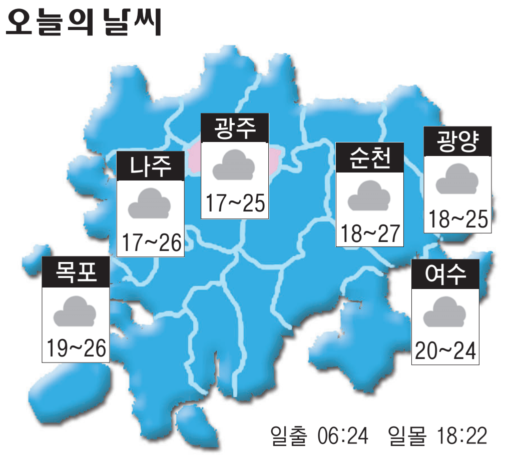
또 형법상 수사 비밀을 전달받은 사람은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징계 대상은 될 수 있어 A 경위에게 수사 정보를 전달받은 의혹이 있는 동료 경찰관에 대해서도 감찰할 방침이다.

A 경위는 광주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철거건물 붕괴 참사 수사, 청연한방병원 사기 사건 관련 경찰관 연루설 등 여러 중요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터라, 주요 사건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학동 붕괴사건은 여러 팀이 나눠 맡아 진행하고 있어 사건 처리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다른 사건들은 내부 회의를 거쳐 처리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경찰청도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B 경위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최환준 기자

오늘의 날씨



일출 06:24 일몰 18:22
월출 22:00 월몰 12:04

지역	날씨	기온	지역	날씨	기온
장 성	☁	17~26	흑산도	☁	20~25
담 양	☁	17~26	구 례	☁	16~26
화 순	☁	16~26	곡 성	☁	15~25
영 광	☁	17~26	완 도	☁	19~26
함 평	☁	17~26	강 진	☁	17~26
무 안	☁	17~26	장 흥	☁	17~25
영 암	☁	17~26	해 남	☁	17~26
진 도	☁	18~25	고 흥	☁	17~25
신 안	☁	17~26	보 성	☁	16~25

목포	만조 05:24 18:10	간조 10:36 23:09	여수	만조 12:24 --:--	간조 05:45 18:16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오늘 전두환 항소심 재판 헬기조종사 4명 증인 심문

5·18 헬기사격 쟁점 법정 출석여부 미지수

전씨 불출석…재판부 올해 안에 선고 전망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씨(90·사진)에 대한 항소심 다섯 번째 재판이 열린다.

이번 재판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출동했던 헬기 조종사 4명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지 주목된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27일 오후 2시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항소심 5번째 공판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9일 항소심 재판에 처음 출석한 이후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아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특히 이번 공판에서는 전씨 측이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된 506항공대 헬기 조종사 4명에 대한 심문이 예정돼 있다.

다만, 이들이 재판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전씨 측은 앞서 육군항공대 소속 헬기 조종사 4명의 인적 사항, 주소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법원에 신청했으나 일부는 1심에서도 소환장 송달에 어려움을 보여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항공대 작전(군 문서)에 ‘헬기 사격 지시’ 내용이 담긴 점, 506항공대 헬기조종사 4명이 1심에서 진술하지 않은 점,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한 날(1980년 5월21일) 출동한 점 등을 고려해 506항공대 조종사들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이후 변호인 측의 전일빌딩 탄흔 등에 대한 증거조사, 추가 변론기일 신청을 검토해 한두 차례 기일을 더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환준 기자

기후 정의 실현 퍼포먼스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이 25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 옥상 전일마루에서 기후 정의 실현을 촉구하며 오염된 지구가 사람을 덮치는 퍼포먼스를 하고있다. /김생훈 기자

출소 5개월만에 또 성범죄 30대 실형

시내버스서 20대 여성 추행

성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5개월만에 시내버스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6시 40분께 광주 동구 충장로를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의 뒤로 다가가 신체를 밀착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어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불안감을 느끼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만에 또다시 범행해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최환준 기자

후임병 추행·폭행 20대 벌금형

후임병을 추행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후임병을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 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내리고 추행 혐의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 육군 모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생활관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 후임병의 이마와 볼에 입을 맞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부대 다목적실에서 장난이라며 후임병의 귀를 잡고 5초간 흔들거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환준 기자

해경, 바다 추락 60대 낚시객 구조

휴대전화 화면을 보면서 부둣가를 걷던 낚시객이 바다에 빠졌다가 해경에 구조됐다.

26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19분께 여수시 신북항 부두에서 60대 낚시객 A씨가 바다로 추락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구조대와 경비함정을 급파해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다리 통증과 저체온증을 호소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119구조대에 인계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여수해경은 부두 안에서 낚시를 마친 A씨가 휴대전화를 보면서 걷던 중 발을 헛디뎌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www.aroma-life.co.kr
Aroma Life
기능성 속옷의 명가 | (주)아로마라이프
힙하오, 업하오, 멋하오.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기능성 속옷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모르이온
브라+슈트+거들
5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르이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5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 바디슈트, 슈에뜨
블랙은사 바디 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런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1. 한국을 비롯한 세계 4개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2.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GOOD!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사용

3.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가공
원적외선 효과

쾌적/ 편한/ 예쁜 기능성 속옷은 '정말' 있습니다.

광주본사 | 총판·대리점 문의: 1588-2219 | 명품관(시착문의): 070-4909-0060 |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35 V&G빌딩
서울사옥 | 총판·대리점 문의: 02-882-4569 | 명품관(시착문의): 070-7726-1100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